

# 하늘에서 바라보는 옥정호 시대

### 임실군, 국내 굴지 대기업 연계해 나래산 정상 케이블카·국사봉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 붕어섬 출렁다리 곧 개통·600여대 대형 주차장·요산공원 관광 조성사업 등 기대

임실군의 대표적 사업인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붕어섬 출렁다리 개통에 이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 등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옥정호 전경을 하늘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옥정호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운암교에서 나래산 정상까지 840m 구간에 설치된다.

또한 모노레일은 붕어섬 인근 요산공원에서 국사봉 전망대까지 800m 구간에 설치, 관광객들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나래산 정상에서 붕어섬까지 약 3km에 달하는 구간에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고, 모노레일도 750m를 연장하여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065억원(1차 355억원, 2차 710억원)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민간사업 형식으로 투자 의사를 임실군에 제안, 대기업 연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옥정호는 붕어섬 중심으로 한 출렁다리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붕어섬 방문객을 위한 600

여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과 요산공원 관광 조성사업 등도 6월 중순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옥정호 출렁다리가 완성되면 붕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가 마련된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신비의 섬 붕어섬이 생태공원 조성에 맞춰 화려한 모습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조심으로 시민 위한 통합 선거 약속”

### 최경식 남원시장 예비후보, 만인의총 참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최경식 예비후보는 28일 첫 일정으로 만인의총을 참배하고 새로운 남원을 만들기 위한 합선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만인의총에서 최 예비후보는 “선거를 준비하면서 힘들고 외로웠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다”며 시민

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바른 마음과 사심 없는 공심으로 시민들을 바라보며 시민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민인의사 총 혼정신을 이어받아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런 남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발효테마파크 상반기 축제 풍성...내일부터 시작

### 연박싱스토리 '목마가넷 꽃강스'·'보글보글 페스타' 개최

(재)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원장 김재건)이 발효테마파크 페스티벌 첫 번째 축제 30일부터 2일간 '목마가넷 꽃강스'를 개최한다.

순창 발효테마파크 천년관광 일원에서 연박싱 스토리, 첫 번째 이야기기를 주제로 열리는 '목마가넷 꽃강스' 축제는 향형색의 목마가넷 스프링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이울러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자이언트 플라워아트 포토존 ▲발효문화체험 ▲사진콘테스트 ▲스텝투어 등이 구성되어 있

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발효테마파크에서는 상반기 축제 3선을 선보일 예정으로 봄맞이 축제 '목마가넷 꽃강스', 어린이날 축제 '보글보글 페스타', 개관기념 축제 '디얼 연박싱 페스타'로 매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연박싱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100주년 어린이날 기념 축제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발효테마파크 야외와 전시관 곳곳에서 열린다.

'보글보글 페스타'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줄 ▲특별공연 ▲애니메이션 ▲발효문화체험 ▲전통장 원데이클래스 ▲푸드트럭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버블공연, 매직풍선 공연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순창고추장을 활용한 악어모양 샌드위치 만들기과 양배추 지시약 염색 실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발효테마파크는 오는 6월 전시·체험시설 4곳이 추가 개관을 앞두고 있어 매일 다양한 축제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MZ세대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 “민주당이 정선 차리도록 시민들께 선택받을 것”

###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28일 오전 10시 30분 남원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의 변으로 “일부 정치모리매들의 협잡과 농간에 굴복할 수 없어 민주당 뜻을 벗고 시민들에게 직접 평가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주당 경선후보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회생안이 됐다는 말을 듣고 피눈물이 났다”며 “당을 위해 20여년이 넘게 헌신하고 투쟁해온 정치 인생이 이렇게 토사구팽 당하나 싶어 자괴감과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고백하며, “모리매 협

잡꾼들의 이간질과 투서 및 농간에 민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을 믿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짜릿한 공천사기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무소속 연대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여자를 두고 생각해야겠지만 언론사의 공식 발표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합중연회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자를 남겼다. 또한 “자신은 20년 동안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지만 당이 정선을 차리도록 시민들에게 선택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피눈물 나는 입장과 선택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경찰서, 건전한

### 112신고 문화 정착 홍보

### 장난전화시 벌금·5년이하징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고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 각종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황한 신고자들이 정확한 신고위치 등을 말하지 못해 경찰 현장도착이 늦어져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에서는 임실공용버스차고지 등 주민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에 112신고 위치 먼저 말씀하시면 경찰관이 빨리 도착합니다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17번 국도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임실경찰서에서는 장난전화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삼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이미선 남원시의원, 재선 도전

### 내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

남원시 바 선거구(동충, 죽향, 노암, 금동, 왕정)가 지역구인 이미선 시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이미선 예비후보는 경쟁이 살아 있는 시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와 따뜻한 정치 주민 곁에서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가, 교수, 공무원으로 일해 왔고, 이 같은 경험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지난 4년 시민들의



간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시작, 초선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누구보다 조례 제·개정과 시정 비판에 힘썼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촉구를 비롯한 5분 발언 16회,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 청년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대표발의 12건 등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은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자신의 대답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도서관 주간·세계 책의 날 행사 성료

임실군이 제8회 도서관 주간(4월 12일~28일)을 맞아 군립도서관 2개소(임실, 오수)에서 개최한 도서관, 책과 더불어 있는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임실군립도서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의 '정적인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써 주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임실군립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특강 ▲에너그램: 도서관에서 너와 나를 잇다 ▲청소년들 도서 대출 시 격정 인형 만들기 키트 배부 ▲세계 책의 날 기념 도서 증정 ▲대출 정지 회원 도서 반납 시 정장 회원 전환 ▲4월의 시 한 편 전시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도서관 내 '책 계단'에서 개최한 '책 안의 클래식'이라는 공연은 익숙하지만 어렵게 느꼈던 클래식 음악을 책과 연계한 해설과 함께 '사랑의 인사', '사랑의 기쁨' 등의 연주곡과

'지금 이 순간' 등의 성악곡을 현악 4중주와 성악가들의 노래로 직접 그 곡들을 들려주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공연 관람객은 '임실에서 접하기 힘든 클래식 공연을 보게 되어 좋았고,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울러 활발한 독서문화를 촉진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돕기 위해 임실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갤러리 북카페'와 연계하여, 책 대출자들에게 음료 쿠폰을 지급했던 1책 1음료 행사 또한 이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임실군립도서관은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독서교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백두대간 국민여가 캠핑장’ 큰 인기

### 총 31면캠핑사이트·샤워실·물놀이터·유아숲·어린이 놀이시설 등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변에 조성된 백두대간 국민여가 캠핑장 이 지난 2021년에 12,280여명의 이용객과 올해 3월까지 2,568명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주변에 조성된 국민여가 캠핑장은 총 31면 캠핑사이트와 샤워실, 물놀이터, 유아숲,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이후 캠핑에 관심 갖게 된 캠핑객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5월에 캠핑장 주말 예약은 매진된 상태이며, 이용방법은 매일 1일 오전 9시부터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예약 시작, 이용료는 사이트당(면

적지는 자리) 1박 기준 3만원이다.

특히 남원시는 캠핑객들에게 편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느티나무 보식, 흰말채나무 외 5종 1,100여본을 식재하는 화단 울타리 정비한데 이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캠핑장 주변에 팡팡 체험장, 구룡계곡 탁본 전시회, 오케스트라 음악회, 통기타 공연 등 체험행사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재 산림복지과장은 “지리산 자연속 휴식공간과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를 제공, 코로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농경지 상습침수 예방 배수환경개선 추진

남원시가 집중호우의 경우 농경지 상습침수가 반복 발생하는 송풍면 세전리와 대강면 방동리 일원 배수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환주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송풍면 세전리와 대강면 방동리 일대에 농업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전복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며,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송풍 세전지구) 및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대강 방동지구)에 선정되어 4월 28일(목)을 확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2년 연속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대강면 방동리 일원은 2020년 집중호우 및 섬진강면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와 집중호우 상습침수지역으로 섬진강 외수위 상승시 자연 배제가 불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세전지구에는 배수장 1개소, 배수문 3개소, 배수로 L=5.6km를 정비하는 배수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방동지구에는 배수장 신설 2개소, 배수문 시설 1개소, 배수로 L=3.2km를 정비하는 배수개선사업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건의 후 현장방문을 거쳐 금년 4월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가 가축분뇨를 활용해 유기질퇴비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인근주민의 악취로 인한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따라 비료생산업체를 대상,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8개 생산업체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꾸준한 미생물제를 실편함으로써 퇴비공장 인근마을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퇴비공장 악취배출원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해 악취발생 시 단계별분류기 등을 분사할 수 있도록 해 악취배출원을 저감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전북 관광설명회 참가...장류축제 등 홍보

순창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관광설명회 '2022 전북에 온(N) 페스타'에 참가해 주요 관광지와 장류축제를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여행업계와 홍보 관계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넘게 침체해 있던 전북지역 단체관광 활성화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부 관광상담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 강연과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여행사(인바운드), 국내여행사(인트라비운드), 관광 전문가,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에게 비대면 관심관광지, 사진찍기 좋은 관광지, 체험여행 등 1:1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2부 관광설명회는 태권도 공연으로 함께 시작하면서, 참가자 전원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만들어진 '희망의 꽃나무 만들기' 환형 퍼포먼스 14개 시군 관광자원 설명 등으로 이어졌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손 씻기·마스크 착용  
일상회복 전환 '지름길'